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플레이오프 진출 꼭 해낸다”

코리아리그 1월 개막 앞두고 미디어데이

강경민·원선필 등 견제하고
신인 송혜수·박세림 활약 기대
선수들 “10승 이상 거두자” 한마음
1월 13일 광주서 4년만에 홈경기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뛰겠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선수단 오세일 감독은 21일 광주체육회관 2층 다목적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목표를 밝혔다.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는 내년 1월 개막한다. 광주 도시공사는 내년 1월 13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4년여만에 홈경기를 치른다. 같은달 28일(필라델피아), 30일(인천광역시청)에도 홈경기가 예정돼 있다.

오 감독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다. 지난 시즌 10승 4무 7패로 정규리그 4위, 포스트 시즌 3위에 오른 전력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정규리그 득점왕, MVP를 거머쥔 강경민, 베스트7에 뽑힌 원선필, 김지현 등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일궈낸 선수들이 견제하다. 여기에다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뽑은 송혜수와 2라운드 6순위 박세림 등을 수혈해 전력보강을 했다.

오 감독은 “광주도시공사는 2년동안 손발을 맞춰온 멤버들의 부상이나 이탈없이 팀웍을 다졌다는 게 장점”이라며 “일단,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야 다양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다. 홈경기는 반드시 이긴다는 각오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8개 팀이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2020-2021시즌에는 국가대표 에이스 류은희와 이미경이 견제하고 강은혜와 권하나, 주희 등 ‘국가대표 올스타’라는 평을 들었던 부산시청공단이 ‘절대 1강’으로 주목됐지만 이번 시즌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지난 시즌 우승팀 부산시청공단은 류은희(형거리 교리)와 이미경(일본 오무로)이 외국 리그에 진출했고 권나는 SK 슈가글라이더즈로 이적했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 삼척시청청은 골키퍼 박세영을 자유계약선수(FA)로 데려와 기존의 박미라와 함께 탄탄한 방어를 구축했다.

오세일 감독은 “올해 팀들이 활발한 트레이드를 통해 전력을 보강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한 경향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규리그에서 10승 이상 올려야 플레이오프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올 시즌에 대비해 웨이트와 코어 근력 강화 훈련에 집중했다. 장기 레이스에서 체력이 저하돼 경기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코로나 때문에 훈련 사정이 여의치 않음에도 전북 원정훈련에서 현지 고교 선수들과 연습경기를 치르면서 다양한 전력을 구상했다. 23일부터는 청주, 익산 등지 아마추어 팀을 상대로 맞춤형 전력을 테스트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연습게임 상대로는 각각 ‘스피드’와 ‘파워’를 갖춘 팀을 골라 효율적인 공략법을 익혔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선수단이 21일 광주체육회관 2층 다목적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올시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올 시즌 새로 가세한 신인들의 활약도 주목된다. 인천비즈니스고와 한국체대를 나온 송혜수는 센터백과 레프트백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로 2018년 헝가리에서 열린 20세 이하 세계 여자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그는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박세림은

제76회 전국중부 핸드볼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경남 체고에 준우승을 안겼으며 이 대회에서 우수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재영입한 골키퍼 박조은은 팀의 맞선니 손민지의 뒤를 이을 골키퍼로 주목받고 있다. 박조은은 지난 시즌 팀을 떠났었다.

이번 시즌을 맞는 선수들은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주장 한승미는 “그동안 합을 맞춰온 선수들과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의 맞선니 손민지는 “골키퍼와 수비진의 효율적인 방어망 구축을 위해 훈련한 만큼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서영 개인혼영 200m 8위로 마무리

한국 수영 첫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개인혼영 결승 출전

한국 수영 선수로는 처음으로 쇼트코스(25m)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인혼영 종목 결승 진출을 이룬 김서영(27·경북도청)이 최종 순위 8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서영은 2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에티하드 아레나에서 열린 2021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닷새째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2분09초94로 8명 중 8위에 머물렀다.

개인혼영 200m는 한 선수가 접영-배영-평영-자유형의 순으로 50m씩 해엄쳐 시간을 다투는 종목이다. 김서영은 접영, 배영 구간까지는 4위였으나 자신에게는 가장 취약한 영법인 평영 구간에서 8위로 밀려난 뒤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김서영의 이 종목 최고 기록은 2017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FIFA 경영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딸 때 세운 2분06초12다.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처음 출전한 김서영은 이날 예선에서 2분08초60으로 전체 출전 선수 31명 중 8위를 차지해 결승에 올랐고, 결국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금메달은 2분04초29를 기록한 시드니 피크렘(캐나다)이 차지했다.

비록 결승에서 예선 기록에도 못 미쳤으나 김서영은 이미 결승 진출만으로도 한국 수영사를 새로 썼다.

올림픽을 치르는 50m 정규코스(롱코스)의 절반 길이인 25m짜리 풀에서 기량을 겨루는 쇼트코



한국 수영 선수로는 처음으로 쇼트코스(25m)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인혼영 종목 결승 진출을 이룬 김서영. /연합뉴스

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개인혼영 종목 결승에 오른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 대회 김서영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한나라가 21일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하나은행 코리아오픈 2일 차 단식 경기에서 공을 받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 이민우 내년 마스터스 출전 확정

세계랭킹 49위로 출전권 확보
김세영, 박인비 제치고 4위로

지난 7월 유러피언프로골프투어 스코티시 오픈에서 우승한 호주 교포 이민우(23)가 2022년 마스터스 출전을 확정했다.

이민우는 20일(현지시간)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50위에서 한 계단 오른 49위를 기록했다.

연말 세계랭킹 50위 이내 진입에 성공한 이민우는 매시 울프(미국·31위) 등 9명의 선수와 함께 내년 마스터스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마스터스는 역대 챔피언과 최근 5년간 메이저 대회 우승자, 최근 3년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 US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와 준우승자, 브

리티시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 올해 마스터스에서 공동 12위 이내에 입상자,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회 우승자 등에게 출전권이 주어진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연말 세계랭킹 50위 이내 진입자에게는 추가로 출전이 허용된다.

지난주와 같은 26위에 위치한 임성재는 올 시즌 PGA 투어 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이미 마스터스 출전권을 확보했다.

지난주 51위였던 김시우(26)는 52위로 밀렸지만 지난 4월 마스터스에서 공동 12위에 올라 전년도 마스터스 12위까지 주는 다음 해 마스터스 출전 자격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남자 세계랭킹 1·2위 자리는 온 람(스페인)과 콜린 모리카와(미국)가 여전히 위치했다.

여자 골프 세계랭킹은 벨리 코르다(미국)와 고



지난 7월 스코티시오픈에서 우승한 호주 교포 이민우. /연합뉴스

진영(26)이 1·2위를 고수하는 가운데, 지난주 4·5위였던 박인비(33)와 김세영(28)이 순위를 바꿨다. 김세영이 5.78점으로 4위, 박인비가 0.02점 뒤진 5.76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

9위 김효주(26)까지 포함해 총 4명의 한국 선수가 10위 내에 포진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우승 후보 블라데노비치와 맞대결

코리아오픈 테니스 2회전 진출

국내에서 세계랭킹이 두 번째로 높은 한나라(271위·인천시청)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하나은행 코리아오픈(총상금 11만5000달러·약 1억3640만원) 2회전에서 우승 후보 크리스티나 블라데노비치(98위·프랑스)를 상대한다.

한나라는 21일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단식 1회전(32강)에서 서지영(랭킹 없음·명지대)에게 2-0(6-1 6-1)으로 완승했다.

이로써 한나라는 톱시드를 받아 2회전(16강전)에 직행한 블라데노비치와 맞대결하게 됐다. 스물여덟 살인 블라데노비치는 2017년 10월 단

식랭킹 10위를 찍었던 강자다. 투어 대회 단식 우승은 한 차례 거둔 바 있다.

한 살 많은 한나라는 단식 최고랭킹이 2019년 6월 149위이며, 투어 대회 단식 우승 경력은 없다.

한나라는 블라데노비치와 투어 통산 1전 1패를 기록 중이다.

지난 8월 미국에서 열린 실리퀸벨리 클래식 1회전에서 블라데노비치에 0-2로 졌다.

한나라는 “블라데노비치와 이번엔 처음 상대하는 것이었다면 더 긴장되고 약간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올해 한 번 붙어봤고 이번엔 홈에서 상대하는 만큼 첫 맞대결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엔간토: 마법의 세계
- 3관 매트릭스: 리저렉션
- 4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6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연애 빠진 로맨스
- 9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 7관 새네케틀 매트릭스: 리저렉션
- 8관 새네케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엔간토: 마법의 세계, 유채이탈자, 연애 빠진 로맨스, 신데렐라 2: 마법에 걸린 왕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2021 ACC 송년음악회
일시 : 2021.12.24.(금)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문의 : 062-524-5086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0회 정기연주회
2022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 2022. 1. 14.(금)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